

부모교육 특성에 따른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및 사회적지지

임 한 나(중앙대학교 석사) · 장 영 은(중앙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부모교육 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총 298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유의추출법을 통하여 인터넷 카페와 문화센터 및 소아과 등에서 어머니들을 만나 수집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교육 참여, 요구도, 제공기관, 회기,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44%의 어머니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였고 2~3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의 부모들이 부모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교육 주최기관에 대해서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참여한 대상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사설기관(문화단체,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시 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로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자녀 돌봄 서비스,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한 주기적인 자녀양육정보, 또래 부모 자조모임 및 품앗이 활동,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한 교육안내정보,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육아상담(수유 및 이유식), 교육 시 차량 지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 식사 및 간식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의 차이로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교육 참여집단이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양육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 참여집단이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더 높은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기관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은 전체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집단의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여회기에 따른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은 전체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회기 이상 부모교육 참여 집단의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부모교육 관련변인인 부모교육 참여 여부 및 프로그램 특성(참여기관, 참여 회기)에 따라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부모교육 참여경험 및 참여기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 제공기관에서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모교육 이후 자녀발달단계별 자조집단 및 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부모 간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